

다니엘서 - 제108번

예언적 상징의 베일을 벗기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나팔에 대한 종합 분석

Jeff Pippenger

2024-02-29

윌리엄 밀러는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해 큰 빛을 받았다. 그는 그 예언적 상징들을 이교와 그 뒤를 이은 교황권이라는, 황폐케 하는 두 세력의 틀 안에 놓았다. 그는 그 상징들의 모든 예언적 특징을 다 본 것은 아니었지만, 그가 본 바는 사도 시대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내부 역사와 외부 역사에 대한 토대가 되는 이해를 확립했다. 내부 역사는 일곱 교회로 상징되었고, 교회들의 외부 역사는 일곱 인으로 상징되었다. 그는 나팔들이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며, 그것이 세상 끝에 있을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표한다는 것을 보았으나, 세상 끝의 로마가 삼중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보지 못했다.

Uriah Smith가 쓴 'Daniel and Revelation'이라는 책은 몇 가지 잘못된 견해를 담고 있지만, 화이트 자매는 이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라고 평가했다. 그녀는 이 책이 'The Great Controversy', 'Patriarchs and Prophets', 'The Desire of Ages'와 함께 보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녀의 강한 지지는 그 책이 자신의 저작들과 동일한 영감의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 책에 "위대한 교훈"이 담겨 있고 "많은 귀한 영혼들을 진리의 지식으로 이끌어 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 책은 1844년 10월 22일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예언 개념들과 더불어 밀러주의적 예언 논리를 사용한다. 우리는 세 화의 삼중 적용을 제시하면서 이 책의 구절들을 참조할 것이다.

밀러는 "일곱 나팔은 땅, 곧 로마 왕국 위에 내려진 일곱 가지 특별하고 중대한 심판의 역사"라고 말했다. 첫 네 나팔은 이교 로마에 내려진 심판을, 다섯째와 여섯째 나팔은 교황 로마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지만, 밀러는 일곱째 나팔이 현대의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일곱 인과 일곱 나팔에 관하여, 유라이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책을 받으신 어린양은 곧바로 그 인들을 열기 시작하고, 사도는 각 인 아래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에 주목하게 된다. 숫자 칠이 성경에서 완전성과 완결성을 뜻한다는 점은 이미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일곱 인이 어떤 범주의 사건 전체를 포괄하여, 아마도 콘스탄티누스 시대까지 내려가고, 일곱 나팔은 그때 이후의 또 다른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나팔들은 인들의 사건들과 동시에 전개되지만 성격이 전혀 다른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킨다. 나팔은 전쟁의 상징이므로, 나팔들은 복음 시대 동안 열국 가운데 일어날 큰 정치적 격변을 뜻한다. 반면 인들은 종교적 성격의 사건들을 가리키며, 기독교 시대의 개막부터 그리스도의 오심에 이르기까지의 교회의 역사를 담고 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431.

나팔은 전쟁과 정치적 혼란의 상징이다. 요한계시록 8장 2절에 관하여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들을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이 절은 새롭고 명확히 구분되는 일련의 사건들을 소개한다. 일곱 인에서는 소위 복음 시대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의 교회 역사를 다루었다. 이제 소개되는 일곱 나팔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전개될 주요한 정치적 사건들과 전쟁 관련 사건들이 다루어진다. 우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476쪽.

일곱째 인은 요한계시록 8장 처음 여섯 절에서 열리며, 그 개봉을 배경으로 일곱 나팔을 든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도록 준비된다.

그가 일곱째 인을 여섯째 때 하늘에는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고, 그들에게 일곱 나팔이 주어졌다. 또 다른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와 제단에 썼고, 그에게 많은 향이 주어져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있는 금 제단 위에 드리게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 천사가 향로를 가져 제단의 불을 가득 담아 땅에 던지니, 소리와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은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하였다. 요한계시록 8:1-6.

우리가 이전 글들에서 지적해 왔지만 그 고유한 예언적 현상 자체는 아직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한 가지 예언적 특이 현상이 있다. 그 특이점은, 예언의 역사에서 일련의 이정표를 대표하는 상징들이 그들이 대표하는 역사의 결말에서 모두 한데 모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에스겔 8장의 네 가지 가증한 것으로 표현된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네 세대가 특정한 이정표들을 표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지만, 그것들 각각은 시험으로서 14만 4천의 인침 역사에서 반복된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이 특이 현상은 일곱 나팔에서도 발견되는데, 비록 그것들이 이교 로마와 교황 로마, 그리고 현대 로마에 대한 특정한 심판들을 나타내지만,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서 현대 로마에 대한 집행 심판이 시작될 때 모두 다시 한데 모인다.

일곱 나팔은 과거의 성취에 대해 구체적인 연대를 가지고 있지만, 화이트 자매는 또한 계시록 8장에서,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의 역사 속에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들을 배치한다.

'그가 다섯째 인을 여섯째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간직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을 보았다. 그들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오 주여, 거룩하시고 참되신 이여, 땅에 사는 자들에게 우리의 피를 심판하여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그들 각 사람에게 흰 옷이 주어졌고 [그들이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선언되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만 쉬라, 이는 그들과 같이 죽임을 당할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채워지기까지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6:9-11]. 여기서 요한에게 제시된 장면들은 현실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어느 때에 있게 될 것들이었다.

"요한계시록 8장 1-4절 인용됨." Manuscript Releases, 제20권, 197쪽.

앞선 단락에서 화이트 여사는 다섯째 인의 대화와 성취를 계시록 8장에서 일곱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위해 예비하는 시기에 적용하지만, 같은 표상을 계시록 18장의 두 음성의 역사에도 적용한다.

"다섯째 인이 열렸을 때,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순교한 자들의 무리를 보았다. 그 뒤에 신실하고 참된 이들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부르심을 받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묘사된 장면들이 이어졌다. [요한계시록 18:1-5, 인용.]" Manuscript Releases 20권, 14쪽.

일곱 나팔은 이교 로마, 교황 로마, 그리고 현대 로마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또한 2001년 9월 11일의 역사와 곧 임할 일요일 법령의 두 번째 음성 속에서도 상징된다. 요한계시록 8장 첫 여섯 절을 다룬 후, 유라이어 스미스는 첫 네 나팔의 역사적 성취를 제시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일곱 나팔의 주제가 다시 제기되어 이 장의 나머지 부분과 9장 전체를 차지한다. 일곱 천사는 나팔을 불기 위해 준비한다. 그들의 나팔 소리는 다니엘서 2장과 7장의 예언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옛 로마 제국이 열 부분으로 분열되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에 대한 설명이 처음 네 나팔에서 주어진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477쪽.

스미스는 첫 네 나팔이 이교도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첫째 나팔의 예언적 특징을 밝히는 7절을 인용한 뒤, 그 역사적 성취를 확인한다.

쇠퇴해 가던 서로마에 내려진 첫 번째 혹독하고 중대한 심판은 후일의 침입에 길을 연 알라릭 휘하 고트족과의 전쟁이었다. 로마 황제 테오도시우스의 죽음은 395년 1월에 일어났고, 겨울이 끝나기 전에 알라릭 휘하의 고트족은 제국에 맞서 무기를 들었다.

알라릭이 이끄는 첫 번째 침공은 트라키아, 마케도니아, 아티카, 펠로폰네소스를 유린했지만 로마 시에는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두 번째 침공에서 고트족의 수장은 알프스와 아펜니노 산맥을 넘어 '영원한 도시'의 성벽 앞에 나타났고, 그 도시는 곧 야만인들의 격노에 먹잇감이 되고 말았다.

"첫째 나팔의 울림은 그 시점을 대략 4세기 말 무렵부터 이후로 비정되며, 로마 제국을 황폐화시킨 고트족의 침략들을 가리킨다." Uriah Smith,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478.

스미스는 첫째 나팔로 나타난 이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인물로 알라릭을 지목한다. 각 나팔마다 그 나팔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이 있으며, 알라릭은 4세기 말에 도래한 첫째 나팔을 상징한다. 밀러는 이 나팔이 일요일 강제 시행 때문에 로마에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는 일요일 준수자였기 때문이다. 스미스도 이 사실을 놓쳤지만, 321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최초의 강제적 일요일 법을 제정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일요일 강제 시행과 관련된 예언적 원칙은 언제나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 원칙은 '국가적 배도 뒤에는 국가적 파멸이 따른다'는 것이다. 알라릭은 콘스탄티누스가 최초의 일요일 법을 제정한 바로 그 시기에 시작된 국가적 파멸의 발단을 상징한다.

스미스는 둘째 나팔을 언급하는 8절을 인용하며 논의를 이어가고, 이어 자신의 주석을 계속한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로마 제국은 세 부분으로 분할되었고, 그리하여 '사람의 3분의 1' 등과 같은 표현이 징벌의 채찍 아래에 있던 제국의 3분의 1을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였다. 로마 제국의 이러한 분할은 콘스탄티누스가 죽었을 때 그의 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 콘스탄티누스 2세, 콘스탄스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콘스탄티우스는 동방을 차지하고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거처로 정했다. 콘스탄티누스 2세는 브리튼, 갈리아, 스페인을 지배했다. 콘스탄스는 일리리쿰, 아프리카, 이탈리아를 차지했다. (사빈의 교회사, 155쪽 참조.) 이 잘 알려진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엘리엇은 알버트 반스가 그의 요한계시록 12:4 주석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렇게 말한다: "로마 제국이 동방과 서방 두 부분으로 영구적으로 분열되기 전에, 적어도 두 차례 제국이 세 부분으로 나뉜 일이 있었다. 첫 번째는 주후 311년에 있었는데, 그때는 콘스탄티누스, 리키니우스, 막시민 사이에 분할되었다. 또 한 번은 주후 337년에, 콘스탄티누스가 사망하자 콘스탄스와 콘스탄티우스 사이에 분할되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계시록, 480쪽.

스미스가 인용한 역사가들이 언급하는, 로마가 세 부분으로 또한 두 부분으로 분할되었다는 역사적 현상은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을 식별하게 하는 로마의 요소들이다. 그 연합은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나타내는 둘로 나뉜 구조를 이룬다. 스미스는 이어서 둘째 나팔과 연관된 역사적 인물을 지목한다.

둘째 나팔의 울림을 보여 주는 역사적 사건은, 무시무시한 겐세릭에 의한 아프리카의 침략과 정복, 그리고 이어진 이탈리아의 정복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다. 그의 정복은 대부분 해상에서 이루어졌고; 그의 승리는 "불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진 것보다 같았다." 어떤 비유가 함대의 충돌과 연안에서의 전쟁이 초래한 전반적 참화를 이보다 더 잘, 아니 이만큼이라도 잘 묘사할 수 있겠는가? 이 나팔을 설명할 때 우리는 상업 세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몇몇 사건들을 찾아야 한다. 사용된 상징은 자연히 격동과 혼란을 떠올리게 한다. 그 예언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맹렬한 해상 전쟁밖에 없다. 만약 처음 네 개의 나팔 소리가 로마 제국의 몰락에 기여한 네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과 관련되고, 첫째 나팔이 알라릭 휘하 고트족의 약탈을 가리킨다면, 여기에서는 로마의 권세를 뒤흔들고 그 몰락을 재촉한 그다음의 침략 행위를 자연히 찾게 된다. 그다음의 큰 침략은 반달족을 이끈 "무시무시한 겐세릭"의 것이었다. 그의 활동 시기는 서기 428~468년이었다. 이 위대한 반달족 수장은 아프리카에 본거지를 두었다....

로마의 몰락에서 이 대담한 해적이 맡은 중요한 역할에 관하여, 기번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표현을 사용한다: '겐세릭은 로마 제국의 파괴에 있어서 알라릭과 아틸라의 이름과 동등한 반열에 들 자격이 있는 이름이다.' Uriah Smith, Daniel and Revelation, 481, 484.

스미스는 첫 세 나팔의 역사적 상징을 지적한 역사가 기번을 인용하면서, 겐세릭이 둘째 나팔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이어 겐세릭이 "알라릭과 아틸라와 동등한 지위를 누릴 만했다"고 말했다. 알라릭은 첫째 나팔, 겐세릭은 둘째 나팔이며, 훈족의 아틸라는 10절에서 다루어지는 셋째 나팔이었다. 스미스는 겐세릭으로 대표되는 둘째 나팔이 "428-468"의 역사를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그런 다음 스미스는 셋째 나팔을 지목하는 10절을 인용하고 서술을 이어간다: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로마 제국의 전복을 초래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으로 이끌린다. 그리고 이 셋째 나팔의 역사적 성취를 찾는 데에 우리는

몇몇 발체를 위해 앨버트 반즈 박사의 주석에 의존하게 된다. 이 성경을 설명함에 있어 이 주석가가 말하듯, '불타는 유성에 비길 만한 어떤 수장이나 전사가 있어야 한다. 그의 행로는 유난히 눈부실 것이며, 그는 갑자기 마치 타오르는 별처럼 나타났다가, 그 빛이 물에 잠겨 꺼진 별처럼 사라질 것이다.' — 요한계시록 8장 주석.

여기서는 이 나팔이 아틸라가 훈족의 무리를 앞장서 이끌고 로마의 권세를 상대로 벌인 폐허를 남긴 전쟁과 맹렬한 침략을 암시한다고 전제한다. ...

'그리고 그 별의 이름은 썩이라 불린다 [쓰라린 결과를 의미한다].' 이 말들은—우리 역분의 구두점에서도 드러나듯—앞 구절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잠시 우리로 하여금 아틸라의 성격, 그가 원인이거나 도구가 되어 일으킨 참화, 그리고 그의 이름이 불러일으킨 공포를 상기시킨다.

'완전한 박멸과 소거'는 그가 가한 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채찍'이라 불렀다. Uriah Smith, Daniel and Revelation, 484, 487.

훈족의 아틸라로 표상되는 셋째 나팔의 역사는 441년부터 그가 사망한 453년까지였다. 이어 스미스는 넷째 나팔을 제시하며 야만 군주 오도아케르를 묘사하는 12절을 인용하는데, 거기에서 서로마의 삼중 상징은 해와 달과 별로 나타난다. 그는 이 세 상징을 "해, 달, 별—여기서는 상징으로 쓰였음이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니—곧 로마 정부의 위대한 광채들, 즉 황제, 원로원 의원들, 집정관들을 가리킨다"고 규정한다. 뉴턴 주교는 서로마의 마지막 황제가 로물루스였으며, 조롱하여 아우구스툴루스, 곧 "작은 아우구스투스"라 불렀다고 말한다. 서로마는 서기 476년에 멸망했다. 그럼에도 로마의 해가 꺼졌음에도 불구하고, 원로원과 집정관이 존속하는 동안 그에 딸린 작은 광채들은 희미하게나마 빛났다. 그러나 수많은 내란과 정치적 부침을 거친 끝에, 마침내 서기 566년에 고대의 정부 형태 전체가 전복되었고, 로마 자체도 세계의 여제에서 라벤나의 총독에게 조공을 바치는 보잘것없는 공국으로 전락했다." 유라이어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487.

여기에서 우리는 로마의 삼분에 대한 또 다른 증언을 보는데, 이는 현대 로마의 삼중 연합을 예표한다. 동로마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경우에는 그 삼분이 그의 세 아들에 의해 대표되었지만, 서로마에서는 그것이 세 갈래의 정부 형태로 나타났다. 스미스는 이어 해, 달, 별이 서로마가 무너진 특정한 순서를 상징한다고 밝힌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마지막 세 나팔의 도입으로 자신의 서술을 마무리한다.

이 야만인들의 첫 침입으로 제국에 닥친 재난이 아무리 두려웠다 해도, 뒤이어 닥칠 재난들과 비교하면 그것들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이었다. 그것들은 곧 로마 세계 위로 쏟아질 폭우에 앞서 내리는 전조의 빗방울에 불토했다. 남은 세 개의 나팔은, 다음 절들에 서술된 바와 같이, 재앙의 구름에 뒤덮여 있다.

'13절. 내가 보매 또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말하되, 아직 나팔을 불 세 천사의 남은 나팔 소리들로 말미암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천사는 일곱 나팔의 천사들 중 하나가 아니라, 남아 있는 세 나팔이 그 소리가 울릴 때 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화의 나팔들임을 알리는 천사일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 곧 다섯째 나팔은 첫째 화이며,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이고, 이 일곱

나팔 가운데 마지막인 일곱째 나팔은 셋째 화이다. 우리야 스미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493쪽.

세 가지 나팔 재앙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제국 로마가 몰락하는 동안의 재난들은 마지막 하나까지 전해졌고, 마침내 로마에는 황제도, 집정관도, 원로원도 남지 않았다. '라벤나의 엑자르크 치하에서, 로마는 제2의 지위로 격하되었다.' 해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고,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도 그러했다. 카이사르의 혈통은 서방의 황제들과 함께 소멸하지 않았다. 로마는 몰락 이전에도 제국 권력의 일부만을 지니고 있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로마와 함께 세계 제국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그 여전히 제국의 도시 위에 고트족도 반달족도 군림하지 못했으며, 그 도시의 황제는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제국의 수도가 처음 이전된 뒤로, 종종 로마의 황제를 자신의 지명자이자 대리자로 삼았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운명은 다른 시대에 이를 때까지 남겨졌고, 다른 나팔들에 의해 선포되었다. 해와 달과 별들 가운데, 아직은 오직 3분의 1만이 타격을 입었을 뿐이었다.

넷째 나팔의 결말의 말씀은 서방 제국의 장래 회복을 암시한다: '낮의 삼분의 일은 비치지 않았고, 밤도 또한 그러하였다.' 세속 권위에 관한 한, 로마는 라벤나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이탈리아는 동로마 제국의 정복된 속주가 되었다. 그러나 이는 보다 적절하게는 다른 예언들에 속하는 일이지만, 성상 숭배의 옹호가 먼저 교황과 황제의 영적 권위와 세속 권력을 격렬한 충돌로 몰아넣었고, 유스티니아누스는 교회들에 대한 모든 권한을 교황에게 부여함으로써 교황 우월권의 증진에 일조했으니, 그것은 후에 군주를 만들어내는 권세까지 행사하게 되었다. 주후 800년에 교황은 샤를마뉴에게 '로마인의 황제'라는 칭호를 수여하였다."-키스. 그 칭호는 다시 프랑스 왕에게서 독일 왕에게로 이양되었다. 그리고 프란츠 2세 황제는 1806년 8월 6일에 이 허구마저 마침내 영원히 포기하였다. A. T. Jones, 오늘날의 위대한 민족들, 54쪽.